

2018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국어고사 문제지

지원 학부 · 과(전공)

수험번호

성명

※ OMR카드 표기 오류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1.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맞는 것은? [2점]

- ① 감기 낮는 게 도와주는 거야.
- ② 몇일 뒤 그는 집을 나섰다.
- ③ 그물 속에 갖혀있던 물고기들.
- ④ 어제 마트에서 콩짜푼을 샀어.

[2-3] 다음 국어의 자음 체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입술	윗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과 열 음	예사소리 ㄴ	ㄷ		ㄱ	
	된소리 ㄴㄴ	ㄷㄷ		ㄱㄱ	
	거센소리 ㅌ	ㅌ		ㅋ	
과 찰 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ㅈㅈ		
	거센소리		ㅊ		
마 찰 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ㅅㅅ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2. 자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점]

- ① 조음 방법에 따라 ‘ㄴ’, ‘ㄷ’, ‘ㄱ’을 구별할 수 있다.
- ② 자음 중에서는 마찰을 일으켜서 내는 소리가 가장 많다.
- ③ 비음과 유음은 소리를 내는 방식이 다르다.
- ④ ‘ㄴ’과 ‘ㅇ’의 공통점은 소리가 나는 위치이다.

3. 자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2.5점]

- ① 유나: 국어에서는 ‘불’과 ‘뽕’이 의미가 달라.
- ② 지수: 맞아. ‘ㄴ’과 ‘ㄴㄴ’은 조음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야.
- ③ 영민: 그런데 왜 영어 ‘bus’는 [버스]라고 말할 때와 [뽀스]라고 말할 때 모두 의미가 같지?
- ④ 혜영: 국어는 영어와 달리 예사소리와 된소리를 구별하기 때문이야.

4. 다음 중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설명은? [2.5점]

- ① ‘비싸다’는 예전에는 ‘가격이 적절하다’의 의미였으나 지금은 ‘가격이 높다’의 의미로 변하였다.
- ② ‘책이 비싸다.’라는 문장을 배운 아이는 ‘웃이 비싸다.’, ‘딸기가 비싸다.’라는 새로운 문장도 만들 수 있다.
- ③ ☆을 한국어에서는 ‘별’, 영어에서는 ‘star’, 중국어에서는 ‘星’이라고 한다.
- ④ ☆을 ‘별’이 아닌 ‘별’로 내 마음대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5. 다음 중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순서대로 놓인 것은? [2점]

- ① 노래 - 학교 - 빵
- ② 빵 - 노래 - 학교
- ③ 칫솔 - 생각 - 셔츠
- ④ 칫솔 - 셔츠 - 생각

[6-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는 다양하다. 두 개 이상의 단어의 의미가 비슷할 때도 있고 반대일 때도 있으며,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관계일 때도 있다. 이 중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하며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 또는 하위어라고 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 또는 상위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음식’은 상의어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또 ‘중식’은 상의어로서 ‘짜장면, 탕수육, 팔보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짜장면’은 ‘중식’의 하의어이다.

흥미로운 것은 하의어를 포함하는 문장이 참이면 상의어를 포함하는 문장도 참이지만, 상의어를 포함하는 문장이 참이라고 하여 하의어를 포함하는 문장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중식’의 예를 들어 보자. ‘나는 오늘 탕수육을 먹었다.’는 ‘나는 오늘 중식을 먹었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나는 오늘 중식을 먹었다.’가 참이라고 해도 ‘나는 오늘 짜장면을 먹었다.’는 거짓일 수 있다. 짜장면이 아닌 다른 중식을 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6. 상하 관계를 이루는 말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2점]

- ① 양서류 - 개구리 ② 수영 - 평영
- ③ 교실 - 유리창 ④ 옷 - 바지

7. 상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한식’은 상위어가 될 수 없다.
- ② 상위어일수록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③ 하위어들은 서로서로 의미가 비슷하다.
- ④ 한 단어는 상위어 또는 하위어 중 하나의 지위만 가질 수 있다.

8. <보기>의 ㉠을 모두 만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2.5점]

<보 기>

국어의 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있다. 이 중 문장에서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 체언이라고 한다.

- ①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
- ② 바로 오늘, 여기에서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 ③ 손꼽아 기다려온 오늘은 체육 대회 날이다.
- ④ 우리는 오늘을 후회 없이 보내야 한다.

9.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민주주의의 의의’의 발음으로 맞지 않은 것은? [2.5점]

<보 기>

표준 발음법 제5항:

‘ㅈ, ㅉ,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ㅌ, ㄴ, ㄹ’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ㄱ]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① 민주주의의 의의
- ② 민주주의에 의의
- ③ 민주주이에 의이
- ④ 민주주의의 이의

10. <보기>를 바탕으로 방언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보 기>

한 언어가 지리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때문에 그 모습이 달라진 것을 방언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 달라진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하고, 계층, 세대, 성별, 학력, 직업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달라진 말을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 ① 병원에 가보니 의사들은 일할 때 평소에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건 직업에 따른 사회 방언이겠지?
- ② 내 주변에는 ‘안 돼.’를 ‘얹 돼.’라고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쓰는 사회 방언인가 봐.
- ③ 남한과 북한의 말이 다른 것도 지역 방언과 상관 있을 거야.
- ④ 나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서울에서는 ‘정구지’라는 말을 쓰지 않아. ‘정구지’는 부산 지역의 방언인 것 같아.

11. <보기>의 띄어쓰기 규정에 맞는 것은? [3점]

<보 기>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3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① 강릉에서 부터 쉬지 않고 달려 왔다.
- ② 이제야 내가 뜻한바를 알겠다.
- ③ 너 마저 그렇게 말하다니.....
- ④ 지금 500원밖에 없어.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예가 아닌 것은? [2.5점]

<보 기>

국어의 모음은 입술의 모양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다.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에 약간의 힘을 가하여 둥글게 만들어 발음하는 것을 원순 모음, 그렇지 않은 것을 평순 모음이라고 한다. 원순 모음에는 ‘ㄱ, ㅋ, ㆁ, ㄷ, ㅌ, ㄴ’가 있다. 원순 모음화란 원순 모음이 아니었던 모음이 특정한 환경에서 원순 모음이 되는 것이다.

- ① 눈물 > 눈물 ② 불 > 불
- ③ 보다 > 보다 ④ 풀 > 풀

13. <보기>의 두 사람의 대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석으로 올바른 것은? [2.5점]

<보 기>

A: 너 무슨 음악 좋아해?

B: 난 가요도 좋아하고, 클래식도 좋아해.

A: 그래? 난 클래식을 좋아해. 그 중에서도 교향곡을 제일 좋아하는데, 교향곡은 관현악을 위하여 작곡한 4악장 이상의 곡이라는 것 너도 알지? 관현악은 관악과 현악을 가리키는 말이고.

B: 너 오늘 입은 바지 정말 이상하다.

A: 넌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B: 너나 조용히 해.

- ① A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말하라는 질의 격률을 어겼다.
- ② A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을 어겼다.
- ③ B는 대화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하라는 관련성의 격률을 어겼다.
- ④ B는 필요한 양만큼 정보를 제공하라는 양의 격률을 어겼다.

14. <보기>를 고쳐 쓴 것으로 올바른 것은? [2.5점]

<보 기>

나는 올 여름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 생각만 해도
 ㉠설렌다. ㉡우리가 이제껏 해 온 여행에 문제는 없을까? 첫째, 여행지에서 너무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된다. 쓰레기는 자연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형 숙박시설에 묵으며 유명 관광지만 걸힐기로 둘러보는 여행은 수익 대부분이 여행 업체에만 돌아가고 여행지의 지역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새로운 여행 방식이 공정 여행이다. ㉣또 남는 건 사진뿐이라며 사진만 찍는 사람들도 있다.

- ① ㉠: ‘설렌다’는 ‘설레인다’로 고친다.
 ② ㉡: 앞뒤 문장을 적절하게 연결해 줄 수 있도록 ‘그런데’와 같은 접속사를 삽입한다.
 ③ ㉢: ‘쓰레기는 자연을 훼손한다’는 호응이 맞지 않으므로 ‘훼손’을 ‘손상’으로 고친다.
 ④ ㉣: ‘사진’은 여행에 대한 이 글의 중요한 소재이므로 이 문장을 앞쪽으로 옮긴다.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처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활동하는 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게 되었고, 성별과 인종, 나이를 초월하여 개인과 개인이 연결됨으로써 조직이나 국경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또한 생산 체계와 업무 방식, 소비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주요 산업 또한 바뀌고 있다.

(나) ㉠ 정보 통신 사회에 대한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학자들도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들이 각종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많아져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에 쉽게 의존하거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특정 정보에만 집착하게 될 수 있다.

(다) ㉡ 컴퓨터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회 전체 기능이 마비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앞으로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극히 미미한 사고가 큰 파장을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컴퓨터 범죄자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기업이나 국가의 정보를 파

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여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라) ㉢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는 계층이나 기업은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며,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정보의 증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를 ‘정보 격차’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컴퓨터 조작에 서투른 중년층 직장인이 컴퓨터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고, 이것이 우울증과 공포증으로 이어져 결국 출근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정보 격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필렬, <21세기 정보 통신 기술의 혁명>

15.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정보 격차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② 정보 통신 시대에 개인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③ 컴퓨터 범죄는 기술의 향상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④ 개인 간 소통이 긴밀해지면서 세대 간 격차도 줄어들 것이다.

16. (가) 앞에 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 ① 단말기 하나로 전화를 걸고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② 손바닥만 한 컴퓨터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③ 화상 통신을 이용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④ 재택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17.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하지만-더구나-한편
 ② 하지만-그러나-나아가
 ③ 그러나-더구나-그렇지만
 ④ 그러나-나아가-그리하여

18. ㉡를 한자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설상가상(雪上加霜)
 ② 사필귀정(事必歸正)
 ③ 적반하장(賊反荷杖)
 ④ 오리무중(五里霧中)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김수영, <파발 가에서>

*석경: 유리로 만든 거울.

*조로: 포르투갈 어인 '조로(jorro)'에서 유래한 말로, '물뿌리개'를 의미함.

(나) 기다리지 않아도 ㉣붉은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너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성부, <봄>

19. (가), (나)의 시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가)는 시각적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 시적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② (가)는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는 의인화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나)는 풍자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20.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① (가)는 과거의 것에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② (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다림에 지친 시적 화자의 절망적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③ (가)에서는 현실과 맞서려는 태도가, (나)에서는 현실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④ (가)의 시적 화자는 (나)의 시적 화자에 비해 우월한 입장에서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21. ㉠,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점]

① ㉠: '붉은 파발'은 '푸른 새싹'을 키우기 위해 미련 없이 많은 것을 내놓아야만 해.

② ㉠: '푸른 새싹'을 키우면서 '붉은 파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거야.

③ ㉢: '너'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고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소중한 그 무엇이 아닐까?

④ ㉢: '가까스로' '껴안아' 본다고 했듯 오래 기다리게 한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

22.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보 기>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곱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① ㉠

② ㉡

③ ㉢

④ ㉤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몹시 춥군요.”

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안이 말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안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모두 한방에 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아저씨는 그저 우리의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름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좋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קות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살이지요?”
 “물론 그것이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 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자리끼: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둔 물.

23.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세밀한 외양 묘사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그려내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의 상황을 교차 서술하여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④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24.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 ① ‘나’와 ‘안’과 ‘사내’는 어릴 적부터 가까이 지내온 사이이다.
 - ② ‘나’와 ‘안’과 ‘사내’는 함께 극장에서 영화 구경을 한 적이 있다.
 - ③ ‘나’와 ‘안’은 ‘사내’의 내면적 고통을 좀처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 ④ ‘사내’는 ‘나’와 ‘안’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25. ㉠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현대인의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범죄자의 심리를 보여 준다.
 - ③ 자신의 고유성을 박탈하는 사회에 대한 저항의 자세를 보여 준다.
 - ④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존재의 신비함을 보여 준다.
26.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은? [2.5점]

<보 기>

‘1964년’이라는 시간은 근대화의 병폐와 자본주의의 모순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서울’이라는 공간은 그러한 문제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세 사람은 자본주의 현실에서 소외된 인물들로, 각자가 지향하는 목표나 가치 체계가 없으며 서로의 관계 또한 단절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 ① ㉠ ② ㉡ ③ ㉢ ④ ㉣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학은 씹먹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한다면 도대체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학은 권력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문학은 씹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씹먹지 못하는 것을 씹먹고 있다. 서유럽의 한 위대한 지성이 ㉠탄식했듯이 문학은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물론 출세하지도, 큰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러나 문학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대체로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유용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의 그 답답함을 생각하기 바란다.

(나)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인 힘을 인지한다. 그 부정적인 힘의 인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 한 편의 아름다운 시는 그것을 향유하는 자에게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 편의 ㉢침통한 시는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다) 문학은 동시에 불가능성에 대한 싸움이다. 삶 자체의 조건에 쫓기는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꿈꿀 수 있다. 인간만이 ㉣몽상 속에 잠길 수 있다. 몽상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몽상은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억압된 삶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문학은 그런 몽상의 소산이다. 문학은 인간의 실현될 수 없는 꿈과 현실과의 거리를 드러낸다. 그 거리야말로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억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라) 문학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학은 배고픈 거지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학은 그 배고픈 거지가 있다는 것을 추문으로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억누르는 억압의 정체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기만을 날카롭게 고발한다.

-김현,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7. <보기>가 들어갈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2.5점]

<보 기>

그것은 소위 감동이라는 말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심리적 반응이다. 감동이나 혼의 울림은 한 인간이 대상을 자기의 온몸으로 파악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문학을 통해, 그것에서 얻은 감동을 통해,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낀다.

- ① (가)의 뒤 ② (나)의 뒤
③ (다)의 뒤 ④ (라)의 뒤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점]

- ① 문학은 씹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② 문학을 통해 인간은 무엇이 자신을 억압하는지 알 수 있다.
③ 문학을 통해 인간은 견디기 어려운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
④ 문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 ㉠와 관련한 구체적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왜 행복의 기준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아야 하는가?
② 왜 물질적인 만족과 정신적인 만족은 일치하지 않는가?
③ 빈부격차가 인간의 삶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④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30. ㉠~㉤의 한자 표기가 바른 것은? [2점]

- ① 탄식-歎息 ② 결핍-缺如
③ 침통-深痛 ④ 몽상-妄想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미타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정토.

(나) 동지(冬至)入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시조

*버혀: 베어.

*서리서리: 형클어지지 아니하도록 둥그렇게 포개어 감아
놓은 모양.

*어른 님: 사랑하는 임.

(다)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라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권가* 하노라

- 서경덕, 시조

*만중운산(萬重雲山): 첩첩이 겹쳐 구름이 덮인 산.

*권가: 그인가.

(라) 내 밋음 둘 더 엷다 어드러로 가랏 말고.
잡거니 밀거니 뉘픈 ㉢뉘히 올라가니
구름은 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둑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브라보라.
㉣출하리 물ᄇ의 가 비 길히나 보자 하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뵈 빈 비만 걸렸는고.
강턴(江天)*의 혼자 서서 디는 희를 구버보니
님 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 정철, <속미인곡>

*쿠니와: 물론이거니와.

*어둥정: 어수선하게.

*강턴: 넓은 강가.

31. 위 글에서 <보기>와 같은 인식을 보이는 것은? [3점]

<보 기>

나의 거처(居處)는 산중(山中)에 있었는데, 바로
문앞에 큰 시내가 있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큰비가 한 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마냥 전차(戰車)와 기마(騎馬), 대포(大砲)와 북 소
리를 듣게 되어, 그것이 이미 귀에 젖어 버렸다.

나는 옛날에, 문을 닫고 누운 채 그 소리들을 구
분(區分)해 본 적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소리는,
올바른 소리가 아니라 다만 자기 흉중(胸中)에 품
고 있는 뜻대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인 것
에 지나지 않는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32. 위 글의 공통적인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점]

① 슬픔 ② 그리움 ③ 서러움 ④ 아쉬움

33. ㉠~㉣ 중 역사적으로 의미가 변화한 것은? [2점]

① ㉠ ② ㉡ ③ ㉢ ④ ㉣

34. (가)에서 ㉠가 일찍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
분은? [2.5점]

① 제1구와 제2구 ② 제3구와 제4구
③ 제5구와 제6구 ④ 제7구와 제8구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진이 여덟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자못 황
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애(男兒) 세상엔 나 어려서 공맹(孔孟)의 글
을 읽고, 자라 요순(堯舜) 같은 임금을 만나, 나면
장수(將帥) 되고, 들면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玉帶)를 띠고 옥궐(玉闕)에 조회(朝會)하
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恩澤)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功名)이 후세
에 드리움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法門)*은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
문(經文)과 일백 여덟 날 염주뿐이라.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생각을 이리 하고 저리 하여 밤이 이미 깊었더니,
문득 눈앞에 팔선녀 섰거늘, 놀라 고쳐 보니, 이미
간 곳이 없더라. 성진이 마음에 뉘우쳐 생각하되,

‘부처 공부에 유로 뜻을 바르게 함이 으뜸 행실
이라. 내 출가한 지 십 년에 일찍이 반점(半點) 어
기고 구차(苟且)한 마음을 먹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이렇듯이 염려를 그릇하면 ㉠어찌 나의 전정(前程)
에 해롭지 아니 하리오?’

향로에 전단(栴檀)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
(蒲團)*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고르며 일
천 부처를 염하더라.

- <구운몽>

*법문(法門): 불법(佛法)으로 들어가는 문.

*포단(蒲團): 부들로 만든 방석.

(나) 손을 잡고 들어가서 촛불 앞에 앉혀 놓고 자
세히 살펴보니, 걸인 중에는 상결인이 되었구나. 춘
향의 모 기가 막혀,

“이게 웬일이오?”

“㉡양반이 그릇되매 형언할 수 없네. 그때 올라가
서 벼슬길 끊어지고 가산을 탕진하여 부친께서는 학
장질* 가시고, 모친은 친가로 가시고 다 각기 갈리어
서 나는 춘향에게 내려와서 돈 천이나 얻어 갈까 하
였더니, ㉢와서 보니 양가(兩家) 이력 말 아닐세.”

춘향의 모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무정한 이 사람아. 일차 이별 후로 소식이 없었
으니 그런 인사가 있으며, 앞날 기약 바랐더니 이리

